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교토를교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문경 교수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하던 교토대가 이제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새로운 변신을 모색
하고 있다.

동대신문

금주의언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된다. 비린내가 없이, 결
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
라.

сут니파타 대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3호 2009년 (불기 2553년) 11월 9일 월요일

Cover Story 예일대 사실은폐 의혹 밝힌 한진수 경영부총장 특별 인터뷰

“예일대 사실은폐 낱낱히 밝힐 것”

2007년 검증요청에 사실확인조차 않은 정황 드러나
소송에 유리한 고지 선점 ... 동국인 지속적 관심 필요

‘진짜 신정아 씨의 학위 검증 우
편을 예일대 측에 보냈느냐’, ‘대체
언제 보냈느냐’, ‘당시 우체국 상황
에 대해 설명해봐라’.

2005년, 신정아 씨의 학위 검증 문
제를 두고 우리대학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상황 파악
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진상조사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학내
구성원들간의 ‘불신(不信)’은 최고
조에 이르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원
회는 사건의 담당자는 물론 관련 있
는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했다. 조사
의 정도를 넘어 엄격한 취조(取調)
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진상조사가 철저하지 못
했다’며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았
다. 예일대의 거짓해명과 국내 언론
의 무차별적인 추측·과장보도가 만
들어 낸 모습이었다.

지난 2일 우리대학은 기자간담회
를 열어 예일대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예일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
증거를 공개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끌어들이는 예일대의 언론
플레이어를 비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 이후, 잠잠했던
예일대와 우리대학 간의 소송에 다
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
직 끝나지 않은 우리대학과 예일대
간의 법정공방(攻防). 약 2년간 소송
을 진행해 온 한진수 경영부총장을
만나 ‘말 못할 속사정’에 대해 들어
봤다.

“속된 말로 귀신이 고향 노릇이었
다”며 말문을 여는 한진수 경영부총
장. 한 부총장은 “2007년 당시 진상
조사를 해 보니, 우리는 분명 학위를
검증해달라는 우편을 보냈는데, 받
은 사람은 없더니 정말 황당하고 참
답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

다.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학위
검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
정치적 스캔들까지 연루된 비도덕적
인 대학으로 우리대학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우리대학 측이 이번에 새롭게 발
견한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
일대 내부에서 오고간 메일의 내용
이다. 예일대가 우리대학에 ‘학위
검증과 관련해 팩스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는 메일을 보낸과 동시에, 내
부적으로는 ‘학위확인을 해준 팩스
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메
일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는 이번 사
건에 대해 예일대 측의 이중적 태도
가 여실히 드러나는 증거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예일대는
우리대학이 보낸 등기우편은 물론
우리 측에 보낸 팩스도 갖고 있었지
만, 우편을 받은 적도 팩스를 보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예일대의
사실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예일대의 사실은폐로 대학의 이
미지 실추, 동문 및 기업의 기부금
감소,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 감소,
교직원 및 교수 해임 등 우리대학이
입은 피해는 막심했다. 하지만 예일
대 측으로부터 받은 사과와 예일대
측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보내온 반 페이지의
사과 서한이 전부였다.

사실 이번 사건과 신 씨의 정치
적 스캔들 그리고 특별교부세 문제
는 별개의 문제다. 시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음은 물론, 소송의 쟁점과
는 어긋나는 이야기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 측이 본 소송과는 상관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여론을 좀 호도(糊
塗)해보려는 작전이 아닌가 싶다”라
며 예일대 측의 언론 대응 방식에 일

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는
물론 판사들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며 “때문에 재
판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대학은 미 코네티컷 지
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7개월여 동안 예일대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예일대가 소송
취하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본격적
인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우리대학은 이 증거조사 절
차 과정 중에 새로 밝혀진 6가지 사
실을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소장변
경 신청을 접수했다.

우리대학이 예일대 측에 제시한 5
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의 규모에
대해 한진수 부총장은 “우리대학이
신정아 사건으로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
며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 부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
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예비
학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 솔직히 그런 손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이라며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설명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실추된 우리대
학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더불어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민사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
다.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
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관련 서류들
은 상대가 원하는 목록에 따라 원본



▲ 지난 2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진수 부총장.

그대로 남겨주어야 한다. 우리대학
의 경우, 36만 페이지 정도에 해당
하는 모든 서류를 다 남겨줬지만, 예일
대 측에서는 특정 부분만을 제출해
우리대학은 판사를 통해 예일대 측
에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우리대학과 예일대 간의 소송에
대해 한진수 부총장은 강한 자
신감을 피력했다. 한 부총장은 “분
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대학은 만드
시 이긴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증
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며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
냈다.

예일대 출신의 법조인이 많은 상
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법 정 의
가 완벽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
기란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지금
까지 진행돼 온 약 2년간의 소송
과정 그리고 오는 12월 열리는 증
인심문과정, 우리대학이 입은 피
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 스스로
가 자각하고, 이제 ‘서로간의 신
뢰’를 바탕으로 힘을 한 데 모아
야 할 때다. ▶관련기사 4면

김철환 기자
lan@dongguk.edu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4호는 11월 23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보리수

탁부(濁富)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지난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 사회 고
위 공직 진출자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데 이 인사청문회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인사청문회장은 마
치 ‘시인들이 부패를 학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들
게 되었다. 공직 후보자들의 충격적인 불법 탈법 사례가 폭로되면 후
보자들은 변명을 되풀이하고, 인사권자는 못들은척 하다가 결국 인
사를 강행한다.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등장한다. 공직 후
보자들 가운데 특히 각종 부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부동산 거래 이익
을 취해온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다. 워낙 이러한 사례가 많다 보니 일
부 언론에서는 그 정도 결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식의 실
로 어처구니 없는 논조를 펼치기도 한다. 재산증식을 위한 불법적 행
위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다는 이상한 정서가 우리 사회 한 구석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맑은 가난은 항상 즐겁고, 탁한 부는 근심이 많다(淸貧常樂 濁富
多憂)”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여기서의 ‘탁부’란 물론 부정하고 부당
한 방법으로 획득된 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누락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구절이 주는 의미를 새삼스럽게 돌이켜 보게 된
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
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잡아함경’). 부처님 말씀처럼, 재물은 법답게 모아야
하며 법답게 모아진 재물 역시 법도를 지키면서 써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그것은 ‘탁부’에 불과하며 ‘근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탁부를 구축한 자들이 국가 고위직에 나아가 권세까지 누리려고
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회망을 발견하기 어렵다. 탁부를 누리는 자
들이 저들만의 논리로 탁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보
다 강력한 경계의 눈빛을 세워두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탁
세(濁世)’로 치달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탁부보다 청빈보다 더 좋
은 것은 ‘청부(淸富)’이다. 많은 동국의 후배들이 법다운 노력으로 재
물을 모아서 법답게 잘 쓰는 ‘청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총학생회 사업결산
4 예일대 소송, 새로운 국면 맞이해
5 아시아 현대미술의 총 집합 - 시티 넷 아시아
6 해외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교토대학교
9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저자 우석훈 인터뷰
12 가을철 질병 막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 약차(藥茶)

[ 세상을 비추는 동국의 힘 - 만해 한용운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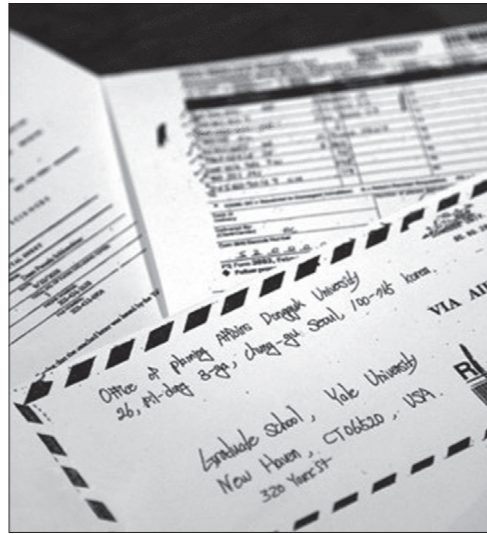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명, 원서접수일자, 전형일시, 홈페이지주소. Lists various graduate schools and their application details.





# 예일대 사실 은폐 증거 속속 발견돼

## 수 개월 간 조사않다 소환장 받고선 하루만에 조사완료하는 이중성 보여



▲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증거(오른쪽 사진)로 인해, 예일대(왼쪽사진)의 잘못된 학위 검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시도가 드러났다.

우리대학은 “예일대 측이 사전에 학위 검증에 대한 잘못을 인지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隱蔽)하려고 했던 증거를 발견했다”며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장을 변경했다”고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우리대학은 현재 예일대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을 끌어들이는 예일대의 언론 발언

을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예일대는 이번 사건의 법적인 문제와 학위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관계자끼리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2007년 6월 13일 예일대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사무관인 수잔 에머슨이 “예일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수잔 에머슨의 이메일은 내부직원이 “이번 학위 검증에 대해 더 조사할 것이 없는데 대해 자문을 구한다”라는 물음의 답변이었다. 또한 2007년 7월 오영교 총장이 보낸 신 씨 학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일대 법무실장인 수잔 카니는 예일대가 동국대에 신 씨 학위 확인을 해준 팩스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에드워드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에게 발송했다. 이러한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2005년 9월 25일 동국대에 학위를 인정해준 팩스가 위조된 가짜라고 주장했다. 메일이 오가던 시기는 신 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들끓으면서 우리대학 등의 확인요청이 빗발치던 때이다. 당시 예일대 직원들은 잘못을 걱정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대학에는 팩스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몇 달 뒤에야 잘못을 시인(是認)했다.

은 “학위를 위조한 대학”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넷째, 수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던 예일대가 2007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 소환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예일대는 수개월 동안 우리대학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학위확인 요청 등기우편과 팩스 원본을 하루 만에 서마이스터 부원장의 보관파일에서 확인했다.

다섯째, 예일대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후에도 곧바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예일대는 미 법무부 정보 소환장에 사건의 진위를 하루 만에 확인하고도 11일 지난 2007년 10월 20일에 회신했고, 우리대학에는 6주 뒤인 “11월 29일에 ‘과멜라 서마이스터 부원장이 ‘바쁜 업무’로 인해 잘못된 팩스를 발송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여섯째, 예일대 측은 “학위 검증 과정 개선”, “우리 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이행” 등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했다. 예일대 홍보실은 같은 해 12월 29일 예일대가 본 사건 이후 졸업학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바꾸고 우리대학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는 학위 검증절차를 변경하거나 미국 법무부의 소환장을 받기 이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번엔 새로 발견된 증거에 대해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우리 측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증거를 통해 우리대학이 소송에서 유리(有利)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용상 법대 학장은 “새로 발견된 사실이 우리대학의 주장을 입증할 정황상 증거로 충분하다”며 “앞으로의 재판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증거”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은 동국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앞으로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새롭게 밝혀진 6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달 20일 접수했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이번 소장 변경 과정에서 새로이 확인된 사실들이 심각하게 훼손됐던 동국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초로 예정된 증인신문과정(Deposition)에서 우리대학과 예일대와의 공방(攻防)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 신 씨 학위검증 공방 주요 사건 일지

#### 신 씨 임용당시 박사학위 검증여부

- 2005년 9월 6일 학위확인 요청하는 등기 우편 예일대로 발송
- 2005년 9월 22일 예일대 서마이스터 부원장 서명 기재된 학위증명서(팩스) 회신

#### 신 씨 가짜 학위 의혹이 확산될 때 우리대학 재확인 노력 여부

- 2007년 7월 5일 신 씨 학위 및 서마이스터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팩스의 진위여부에 대한 예일대 총장에게 확인요청
- 2007년 7월 10일 수잔 카니 부총장실 법무실장, “신 씨는 예일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예일대로부터 받았다는) 팩스는 위조본”이라고 주장
- 2007년 7월 15일 예일대 법무팀에 “동국대가 서마이스터 부원장 명의로 받은 팩스 송신 번호가 예일대 내 팩스가 맞는지” 확인 요청
- 2007년 7월 16일 법무팀 “팩스번호는 맞으나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 후 무응답

#### 예일대, 우리대학의 학위 확인 요청에 대한 검증의무 다툼

- 2007년 8월 31일 미국우편 서비스로부터 최초의 우편(2005년 9월 6일 신 씨의 학위 검증 요청 우편) 수령한 예일대 측 수령자 ‘YCM의 M.Moore’로 기록된 것 확인 후 예일대에 알림
- 2007년 8월 31일 예일대측, ‘YCM의 M.Moore’란 직원은 없고, YCM은 예일대와 무관한 약자라고 답함
- 2007년 9월 1일 우리대학측, 예일대 홈페이지로부터 YCM이 예일대학교의 약자, ‘YCM의 M.Moore’라는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힘. 예일대측, “해당 등기우편에 대한 미국우편서비스의 실제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요구
- 2007년 9월 13일 우리대학, 해당 우편에 붙었던 라벨 사본을 발송
- 2007년 9월 21일 예일대측, 신 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자료 가짜라는 내용의 공식성명 발표

#### 예일대, 학위 검증이 잘못된 것을 인지한 후 대처방식

- 2007년 10월 18일 우리대학의 학위확인 요청 등기우편과 팩스원본이 서마이스터 부원장의 보관 파일에서 발견
- 2007년 12월 29일 잘못 확인 2달여만에 학위검증이 잘못된 것이라는 공식 성명 발표

## 예일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나와 예일 데일리 뉴스, 예일대 잘못 지적 보도



우리대학과 예일대학간의 소송과 관련해 예일대 학내언론에서도 우리대학에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들이 보도되고 있다. 예일대에서 발행되는 ‘예일 데일리 뉴스(Yale Daily News)’는 지난 10월 30일자 ‘한국의 학력 스캔들이 확대된다(South Korean degree scandal escalates)’란 기사를 통해 신 씨 사건에서부터 소송까지의 진행경과와 쟁점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예일대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11월 2일자 인터넷 신문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백악관 법률보좌관이었던 레니 데이비스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데이비스는 “빛도 진리도 아니다(Neither lux nor veritas)”란 제목의 칼럼에서 “예일대가 지난 250년간 지켜온 진리를 향한 노력이 누그러져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예일대가 몇몇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동국대학교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 예일대 동문, 재학생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아이디 ‘cheekyB’는 사건내용을 요약하며 “어떠한 의문점도 없이, 예일대가 명백히 실수했다”고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J’는 “예일대의 평판은 5천만 달러보다 가치있다”며 “실수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 동대문학상 · 동대학술상 모집



동대신문사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시상하여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문화도 발굴을 통하여 빛나는 동국 문학 전통을 계승하고자 제47회 동대학술상 / 제24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국의 미래를 열어갈 패기에 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분량

가. 동대학술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나. 동대문학상 (1) 시: 3편 내외 (2) 소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회곡·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2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사부의 경우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3 응모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4 모집기간: 2009년 10월 19일(월) ~ 11월 13일(금)까지

####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겹표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겹표지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엔 이름 등 신상명세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문서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6 보낼곳: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술상 / 동대문학상 담당자

7 문의처: 전화 (02)2260-3494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마당

8 심사결과발표: 2009년 12월 7일자 동대신문 지상(예정)

9 기타: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응모된 바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 동대신문사

# 아시아 현대 미술의 총 집합 '시티 넷 아시아展'

## 시립미술관 오는 22일까지 4개국 정체성 담은 현대 미술 100여점 전시



▲ 중국 베이징 시내 고층 빌딩을 변형시켜 합성시킨 중국 작가 치펑의 사진 작품.

‘가깝지만 먼, 멀지만 가까운... 아시아 현대미술(美術)’

그 동안 우리는 ‘피카소’나 ‘앤디 워홀’ 등 유럽과 미국의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반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상대적으로 만날 기회가 적어 아시아의 현대 미술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만한 비유이다.

최근 아시아 현대 미술은 세계 미술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미술 무대에서 급부상(急浮上)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City net Asia 2009 아시아 현대 미술 프로젝트(이하 시티 넷 아시아 2009)’은 바로 이러한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展示)이다.

### 아시아 현대미술 모이다

시티 넷 아시아 2009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의 주요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그 도시에서 주목받는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변화하는 아시아 현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시티 넷 아시아 2009에는 서울 시립미술관, 도쿄 모리미술관, 베이징 금일미술관,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등 4개의 도시의 현대 미술관들이 참여했다.

### 사회적 시각 담긴 서울展

서울 전시의 주제인 ‘양날의 검’은 9명의 작가들의 20여 점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들은 특정한 미술 경향이나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便乘)하지 않고, 회화, 설치미술,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한국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치·문화적 이슈들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

최수양 작가의 ‘The Wing’은 노동으로 거칠어진 여러 사람들의 손이 모여 날개모양을 형성한 작품이

다. 60년대 빠른 경제적 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노동자들의 손을 묘사한 것으로, 그들의 희생을 무시한 체 경제 성장 정책에 몰두했던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視線)이 담겨있다.

### 신세대 작가 개성 두각

베이징 전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상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다리가 희미한 중국 공안의 사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상징하며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우스운 로봇 모양으로 변형(變形)시켜 합성시킨 사진 작품들은 중국 신세대 작가들의 솔직한 시각이 돋보였다.

또한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못한 작가 바이 이휘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인들의 수많은 주민등록 사진을 재료로 수작업을 통해 말모형을 만들었으며, 낫, 쟁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나무로 형상화

(形象化) 하는 등 신선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 각국 특색 물어낸 해외展

이스탄불 전시는 현대화 과정에 서 빚어진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갈등, 터키 내 이민자들의 고층 그리고 진정한 현대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음악, 비디오, 회화(繪畵) 등이 제시됐다.

일본의 다양한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도쿄 전시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실, 흙, 고무, 양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기성품으로 만든 수작업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아시아의 4개의 도시가 미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번 시티 넷 아시아 2009 전시는 각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現象)에 대한 현대 미술가들의 시각과 아시아 현대 미술의 흐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바느질로 그리는 현대인들의 욕망

### 송영희 동문, 오는 26일까지 세오갤러리서 개인전 열어

‘그녀의 바늘 끝, 꽃이 피고 새로운 세계를 형상화 한다’

영 아티스트 송영희 작가(서양화 05졸)는 오는 26일까지 서초동 세오갤러리에서 ‘바느질된 욕망(慾望)의 기호’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송영희 작가는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바느질과 가죽을 사용해 기계문명과 허상(虛像)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된 ‘빼어난 수(數)’ 시리즈는 섬세한 바느질 작업을 통해 형상화된 작품들로, 욕

망의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붉은 바당위에 체스판 무늬의 천 조각, 가죽 천으로 만들어진 시계, 숫자 등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숫자, 시계 등으로 표현하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희망(希望)의 메시지를 구현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만의 독특한 기호로 조합된 작품들로 구성된 예술품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 정달영 교수의 공연 100배 즐기기

#### 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

2001년 필자가 국립극장에서 근무(勤務)하던 시절 ‘극단 미추’의 직원이 찾아왔다. 당시는 MBC가 극단 미추를 상대로 ‘마당놀이’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에 대해 극단 미추가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맞대응에 돌입한 시기였다. 즉, 마당놀이 명칭은 1994년 MBC가 상표등록을 했으므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극단 미추는 “마당에서 하는 놀이”라는 보통명사로 ‘연극’ 같은 예술 장르의 명칭이지, 상표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은 홍보·마케팅을 맡은 MBC와 제작·공연을 맡은 극단 미추가 2001년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차로 결별하고 각기 공연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사뉴스



▲기간: 11월 26일 ~ 2010년 1월 3일 / 장소: 서울 월드컵경기장 마당놀이 전용극장 / 가격: 지정석 4만원, 자유석 3만원 (tip! 우리대학 학생증을 가져가면 11월 한해서 30% 할인, 12월에는 20%할인)

에 따르면, 미추측 변호사는 마당놀이가 보통명사일 뿐만 아니라,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관용표장’이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마크로 이미 식별력을 잃어버린 상표를 지칭한다. 최근의 예로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해당되며, ‘초코파이’의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상대측 변호사는 MBC가 마당놀이를 기획했으며, 용어 또한 새롭게 만들고 장르화 시켰다는 것이다. ‘초코파이’는 방치(放置)해서 보관된 경우인데, MBC는 남용을 미연에 막아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엔 미추가 소송(訴訟)에서 이겼다.

상표권 분쟁으로 한때 공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를 추천하고자 한다. 지난 29년 간 전국순회공연을 통해 매년 2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온 신선한 형태의 ‘열린 무대’이기 때문이다. 독자 중 마당놀이는 어른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관객층이 해마다 늘어 20대 연령층의 관객이 28%(2008년 집계)를 차지하여 올드팬의 점유율(占有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엄혹한 5공화국 시절, 함부로 수군거리기도 어려울 때 세태(世態)를 절묘하게 패러디해 사람들을 대리 만족시켰던 마당놀이의 ‘세태 꼬집기’가 공연 관람의 백미이다. 고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가득한 우리 고전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노래와 춤과 같은 연희적(演戲的) 요소들을 동원하여 현대의 사회상과 절묘하게 조화시킨 점에서 꾸준히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같은 작품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더라도 당시 세태를 반영하다보니 관객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작품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볼거리로는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이 무대를 지켜 온 ‘마당놀이 인간문화재’ 윤문식, 김성녀, 김중엽의 ‘에드러브’이다. 이들 3인이 극의 분위기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처(對處)하는 장면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들일 것이다.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교수〉

# 신종플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감염 증상이 있거나 거주지역에서 치료를 받아 격리치료를 받으신 분들과는 즉시 학교(상황실 02-2260-3699)로 연락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체 행사(개강총회, 세미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에티켓을 철저히**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걱정보다는 진료**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가정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충분한 휴식, 수분섭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 37.8 °c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구 거점병원 : 국립의료원 (1588-1775) 백병원 (2270-0114) 송도병원 : 2231-0900





# “불교, 관용 · 인내를 통해 어려움 극복”

## 불교문화연구원, 동남아시아 근대 불교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 베트남 불교와 근대사를 발표한 팜 꾸옥 수 (하노이 국립사범대학) 교수(왼쪽)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主管)하는 불교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가 ‘동남아시아의 근대 불교’란 주제로 지난 6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팜 꾸옥 수(하노이 국립사범대학 역사학), 가미니 키라웰라(페라데니야대학 역사학) 피차이 간나꾼쑤틴(태국 치앙마이차팍대학),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교수가 참석해 발표를 맡았다.

제 1 발표를 맡은 팜 꾸옥 수 교수는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서구 세력의 팽창(膨脹)과 지배(支配)를 배경으로 한 베트남 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베트남 불교는 가톨릭과 서구 식민주의에 대항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고난을 겪는 동안 베트남 불교는 강한 생명력을 보이며 관용(寬容)과 인내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팜 교수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베트남 불교엔 배울 점이 많다”며 베트남 불교

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관해 그는 “베트남 불교는 민중의 단결과 평등한 박애주의 사회 구축, 전통 문화와 가치의 보호, 현대화와 세계 발전 과정으로의 통합 등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팜 교수는 현재 베트남 불교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팜 교수는 “베트남 불교는 불교도들 간의 불화, 부정행위 등 일부 내부적인 문제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교는 베트남 국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미니 키라웰라 교수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리랑카 서구 식민주의(植民主義)에 대한 불교인들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키라웰라 교수는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 식민주의를 맞이한 국가”라며 “일찍부터 스리랑카의 불교는 서구 식민주의 침입(侵入)의 필수적 요소인 기독교와 맞서야 했다”고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키라웰라 교수는 또, “서구 열강의 침입이 잦은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불교도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信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다”며 “이러한 불교도들의 노력으로 스리랑카 불교는 서구 식민주의에 맞서 그 명맥(命脈)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세계화 시대의 태국사회와 불교’란 주제를 맡은 피차이 간나꾼쑤틴 교수는 “태국의 불교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치이며 국가적 정체성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태국의 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피차이 교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태국인들은 출생과 동시에 불교도가 된다”며 “만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라에서 주민등록에 종교를 불교로 명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국사회는 생활방식과 불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식민시기 미얀마 불교민족주의의 성격과 한계 : 전통과 근대의 교차점에서’란 주제로 강연한 장준영 교수는 미얀마 불교에 대해 “미얀마 역사를 통틀어 불교와 불교의 매개자인 상가는 국가운영 원리의 근간이자 정부와 국민을 중재하는 매개체(媒介體)”라 표현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우리대학 불교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 연구자들과 베트남과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온 불교연구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근대화에 불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아시아 불교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파워 엘리트 장학생들의 유학 후기 (2) 박정동 UC 버클리 전자회로학 박사과정

## 철저한 조교시스템 통해 전문가 양성 고단한 교육과정 통해 사회적 리더 배출



이번 가을 학기에 저는 전자회로 조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클리의 조교 시스템은 GSI(Graduate Student Instructor)라고 일컫는데, 버클리 전기컴퓨터학과와 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이라면 의무적으로 두 번의 GSI를 하도록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은 lab session을 담당하고 고학년은 discussion session을 담당하게 됩니다.

GSI는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토론에 노출되어 전공기초 과목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고 더불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GSI는 매주 1시간씩 교수법 개선에 관한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교수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과목의 GSI는 수강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세부 평가 결과가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따라서 GSI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의 주된 일은 연구이기 때문에 비록 GSI를 맡게 되더라도 리서치를 병행해야 하기에 보통 한 과목에 최소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GSI가 할당됩니다.

UC 버클리 EECS의 전공 기초 교과목은 주당 1시간의 Discussion session, 3시간의 Lab session, 3시간의 강의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제출해야 하는 숙제, 그리고 Prelab과 Lab으로 할당된 2종류의 Lab 보고서는 보통 학기당 4개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전공과목은 상대평가에 따라서 학점이 엄격히 관리되고,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결국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UC 버클리 공대의 특징입니다.

학위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봉사하는 리더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성취하도록 잘 설계된 교육시스템이야말로 버클리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UC 버클리의 전기컴퓨터학과는 응용분야와 기초 이론 분야를 통합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이종분야간의 선도적인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학계와 정부, 산업계 등에서 봉사할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학도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주된 임무라고 규정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위해서 모든 교육과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는 모교에도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박정동 (전자공학, 98졸)



▲ 발표 중인 구진준(顧金俊) 중국경제일보 기자

## “북핵문제 해결위해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

### 북한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리츠메이칸 대학과 교류협정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가 ‘신국제협력 시대에서의 동북아’라는 주제로 지난 6일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에서 열렸다. 우리대학 북한학연구소(소장·강성운)와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리츠메이칸 대학의 나가토 교수, 카세다 교수 및 우리대학 김동한, 전미영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1부 학술회의에서 나가토 교수는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의 계기(契機)에 대해 “UN 안보리의장성명으로 한국 PSI 참가 표명(表明)과 제재가 압력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필요성을 가중(加重)시켰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봐도 보다 정밀도 높은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

우는 상생(相生)과 공영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이 실제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처럼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 카세다 교수는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包括的)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 “북한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북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국교정상화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카세다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그만두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그만둘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打開)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진준(顧金俊) 중국경제일보 기자는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직 가변적이나 여러 국가들이 취할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학술회의엔 우리대학 고유환, 박순성 교수 등이 참가해 동북아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우리대학 북한학연구소와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는 같은 날 11시에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에서 학술교류 조인식(調印式)을 가졌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자격을으로 끝나는 MBA는 가라!

현장에서 인정받는 MBA는 따로 있다

실무에 강한 국내 유일의 현장 맞춤형 - 동국대학교 MBA

- Culture-Oriented MBA : 한·미·일·영·중·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화된 문화경영관리사 양성
- Entrepreneurship MBA : 기업창립 및 경영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환경변화 및 경쟁력강화를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 국제재무관리 MBA :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재무·회계·세무가 양성
- CPA MBA : CPA준비와 MBA를 동시에 추구하는 관리자 양성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제 GMAT 면제

2010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9. 11. 9(월) ~ 11. 20(금) | 02-2260-8884~5 (http://mba.dongguk.edu) | 세상을 바꾸는 힘 |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2009 겨울 영어캠프

동국대학교 영어캠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따라올 수 없는 저렴한 가격, 통학하며 다니는 3주간의 집중 영어교육캠프
- 말하기/듣기에 중점을 둔 실용적 영어학습, 레벨테스트 후 개인별 맞춤학습
- 소수정예반 운영으로 전원 활발한 참여 가능, 각 반 원어민담당제 실시

학점인정 - 수료자는 교양 3학점 인정 및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통과

교육일정

기간 : 2010.01.04(월) ~ 01.22(금), 3주간  
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혜화관)  
수강료 : 재학생 ₩550,000(교재비 포함)  
타교생 및 일반인 ₩650,000(교재비 포함)

등록절차

접수 및 납부 기간 : 11월 16일 ~ 12월 16일  
온라인(clinic@dongguk.edu) 및 방문접수 가능

레벨테스트

레벨테스트 : 12월 17일(혜화관 1층, 시간은 추후 공지)  
영어인터뷰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분류, 해당 레벨에 따른 반 편성

문의사항

Tel. 2260-3468 ~ 3470 / clinic@dongguk.edu (http://duet.dongguk.edu)

외국어교육센터

###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동국대학교 103년! 불교학과 103년!

2009년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동문 선후배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 18:00  
장소 :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19층 오키드룸  
참석대상 : 불교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및 가족 학부 4학년생  
참가회비 : 5만원 (학부생은 무료)  
연락처 : 02-2260-3835

불교학과 동문회 공동회장  
홍파 / 홍영춘 합장

### 저자 인터뷰

## 새로운 진보의 힘, 20대에 대한 희망

### ‘88만원 세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저자 우석훈



▲ 20대에 던지는 화두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로 돌아온 ‘88만원 세대’의 우석훈 씨.

사회의 핵심은 청년이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청년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로 돌아왔다.

현재 우석훈 씨는 성공회대 외래교수 및 저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신간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출간 기념 강연을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에 출간된 신간(新刊)에 대하여 “제목 그대로 혁명은 조용히 흘러간다는 뜻으로, 20대보다는 대학생에게 초점을 맞춰서 썼다”고 말했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의 핵심 키워드는 ‘믿고 나누라’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서로 믿고 나누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우석훈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대학사회 특징상 한 명의 개인이 먼저 나선다면 나머지 개인들도 따라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가 바로 다음 발전을 위한 진화(進化)의 순간”이라 말하며 ‘믿고 나누기’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20대의 과제는 주변의 친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80년대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양식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며 “친구를 믿고 문제를 나눠야만 지금의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재 대학생들의 저조한 독서율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한다. 그는 “독서

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단 하나의 루트”라고 말하며 “독서율이 저조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열변을 토해냈다. 이어 “학생들이 적어도 하루에 2권 이상씩 독서(讀書)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석훈 씨는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직접보고, 몸으로 부딪혀 보라고 말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이 진정한 진리(眞理)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석훈 씨는 책과 영화를 많이 접하고 그것들에 대해 배우라고 말한다. “책과 영화 속에는 우리의 단면적 생각을 입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는 전작인 88만원 세대의 후속편으로 움츠러고 웅크려 있는 20대들에게 우석훈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꼭 막힌 틀에 갇혀 길들여지고 있는 20대들이 코코 샤넬과 같은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길 바라는 그의 뜻이 잘 담겨있다.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du

### 이주의 새책

## ‘프라토의 중세 상인’, 14세기 유럽을 그리다



### 프라토의 중세 상인

지은이 이리사 오리고 / 옮긴이 남종국  
펴낸 곳 엘피 출판사  
28,000원 / 800쪽

14세기의 유럽은 어떤 곳이었을까? 데카메론의 보카치오가 살아있던, 르네상스의 낭만과 흑사병의 공포가 공존했던 유럽. 그 유럽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기록(記), 이는 이탈리아의 상인 프란체스코 다티니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이다. 그가 남긴 14만 통의 편지, 500여 권의 원장 및 회계장부, 그리고 수백 장의 수표, 동업계약서는 중세 유럽의 무역과 중세 유럽의 도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프라토의 중세 상인’은 프란체스코의 개인적 편지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보여준다.

1부에서 나오는 프란체스코의 인생은 “많이 두렵긴 하지만 항해를 멈추는 뱃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란 그의 한 마디 말로 요약(要約)된다. 그의 성격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진취(進取)적이다.

그는 항해를 멈추지 않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무엇이든 굶어모으며 자신의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갔다. 책 속에 나오는 그의 기록에는 거대한 사람의 성격,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정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그가 어떻게 프라토의 대상(大商)이 됐는지, 그리고 중세유럽의 상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게 해준다.

2부에서의 프란체스코는 한 명의 도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다. 2부에서 등

장하는 그의 아내 ‘마르게리타’와 그의 친구 ‘라포 마체이’는 그의 도시민적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젊은 아내를 임신시키기 위해 프란체스코는 여러 민간처방을 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였다. 그 결과 프란체스코 부부는 26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된다. 이같이 문제가 많았던 그의 가정은 그가 상인으로서의 완벽함과 달리 가장으로서의 서툰 허술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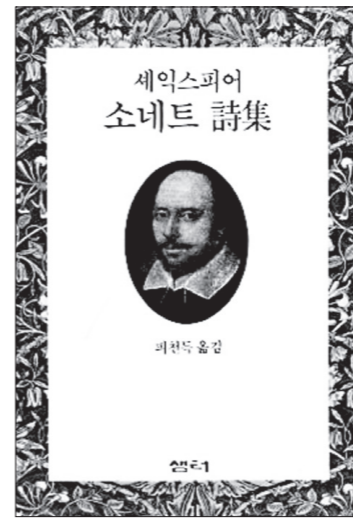
2부에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라포 마체이’는 그는 문제가 많은 프란체스코 집안에 많은 조언을 통해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책 속의 등장인물, 그들의 재미난 연극 속에 중세 유럽 생활상이 어느새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온다. 고즈넉한 유럽의 성을 보며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 중세 유럽의 실상이 궁금한 사람이 꼭 읽어 봐야 할 필독서(必讀書)이다. 파리 1대학에서 서양중세사를 전공한 우리대학 사학과 남종국 교수가 번역했다.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 황헌성 교수의 독서산책

## 소네트, 사랑의 영원불멸성을 노래하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시집  
지은이 셰익스피어 / 피천득 역  
펴낸 곳 샘터사  
8,000원 / 182쪽

셰익스피어는 이들 드라마 작품이 없었다고 해도 이 소네트집만으로도 위대한 시인의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에게 사랑은 지고지순(至高至順)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에 닿아 있어 그 순간은 캡처되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며 사랑의 빛 속에서 탈바꿈한 자신과 연인을 마주보게 된다. 그 사랑은 오월 어느 날 오후의 햇살 아래 자신의 이데아가 마음껏 발휘된 잠미처럼 슬프도록 아름답다. 곧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환희의 정점을 지나 시간의 손을 타서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꽃잎은 선홍빛을 내주고 탄력을 잃고 중력에 못 이겨 아래로 무너져 흐르기 시작한다. 천지에 이제 잠미는 자취도 없다. 시들기 시작한 꽃은 존재할지 몰라도, 중력에 의해 지상의 존재로 끌어내려진 잠미는 더 이상 잠미가 아니다. 그리하여 예술가는 시들기 전 잠미를 불멸화할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셰익스피어는 젊음, 아름다움, 사랑을 노래하며 불멸화하고자 한다. 18년부터 예술을 통한 미, 사랑, 청춘의 불멸화는 다양한 메타포를 거쳐 가면서 소네트 연작의 중핵적인 주제로 부각된다. 예술적 불멸화 작업의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메타포 등을 통하여 연인과의 데이트, 용모, 관계 내지는 시간, 자연의 이미지 등을 시적 형상화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54편의 소네트 중 많은 시편들이, 연인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가슴을 감싸는 의상으로 비유하는 시(22), 연인의 초상화를 화폭에 담아 “마음의 거실”로 옮겨놓는 시(24), 헤어짐의 슬픔을 자신이 타고 가는 말에 가탁하는 행위(50), 연인과의 데이트를 “진귀하기에 웃음을 여미게 하는” 축제일에 비유하는 시(52), 연인의 아름다움을 장식 없는 자연의 꽃이나 “흘러간 시대의 지도”로 비유하는 시(68),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이 연인의 미모와 향기를 강도질하여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99), 시간에 의해 희롱대는 어릿광대가 아니라 심판일 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예찬하는 시(116), 시간을 위압적인 석탑에 비유하는 시(123)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란하면서도 시제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 메타포를 통해 사랑과 시간의 의미를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소네트 60에서 노래하길, “시간은 청춘에 드리운 화려한 치장물을 걷어 버리고/미인의 이마에 주름 고랑을 패게 하며/절제기인을 파먹어 들어가니/그의 베어가는 낫질에 버릴 존재가 어디 있으랴./하나 나의 시구는 그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그의 냉혹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요즘 세태에선 사랑의 잠미꽃이 시간의 손을 타서 그 꽃잎이 허물어져 내리면 조금 전 누렸던 사랑의 열락을 망각하고 새로운 사랑을 소비한다. 사랑은 기억과 보존, 나아가서 불멸화의 대상이 아니라 구매하기에 좀 가까운 모델이 낡은 상품이기에 때문이다.

(영어영문학과 교수)

# “덴노헤이카 반자미!”

“천황폐하 만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절을 하며 외친 말입니다. 내일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런 기억으로 각인된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입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 2009년 9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교도통신’ 인터뷰 중에서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중장 출신 미우라 공사가 주도하여 조선의 명성황후를 참혹하게 모살(謀殺)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9년, 이국 땅 하얼빈에서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인 죄’를 들어 조선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9년 현재,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슬펐던 장례식을 치른 기록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가 일본 왕실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덴노헤이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명성황후 모살을 사죄하고 참회하십시오!  
궁내청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십시오!

우리는 일왕 아키히토의 한국 방문을 ‘아주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조계종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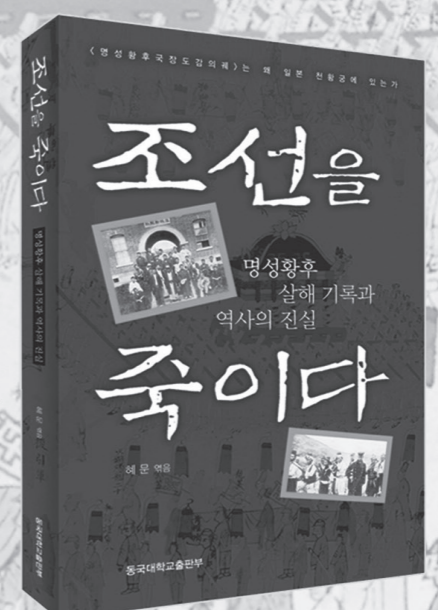
문화재제자치찾기

바탕그림: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발인반차도(發引班次圖)

※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일제가 약탈 반출한 우리문화재 반환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조선을 죽이다

명성황후 살해 기록과 역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모를 죽인 자’들의 고향과 무덤을 누비면서 그들이 남긴 유품과 기록을 찾아 이국의 곳곳을 만행(萬行)한 눈 푸른 남자(衞子)의 비장한 수행 기록

□ 명성황후 살해에 직접 가담한 당시 한성신보 편집장 고비키와가 쓴 수기(인후조락사건) 원역 수록

□ 일본에서 ‘조선왕비 능유실’을 불러일으켰던 <에이조 문서> 등 일본 국외 한정자료실에서 입수한 <조선왕비사건 관계자료> 전문 수록

해문 역음/신국판 304쪽/값 12,000원/동국대학교출판부

역사는 아직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달하나 천강에**

**따뜻한 인사 바이러스**

이승남  
(교양교육원 교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녔고, 지금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가끔은 ‘불조심’이나 ‘쥐를 잡자’,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 등과 같은 기다란 것을 이름표 아래쪽에 달기도 했다. 비닐로 씌워 만든 것을 문방구에서 사기도 했지만 대개는 집에서 하얀 천 조각에 글씨를 써서 달았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검사하기도 했고 등교 시 교문에서 이것을 달지 않은 학생을 붙들어 벌을 주기도 했다. 지금도 오월이면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어버이들이 달고서 자신들을 잘 모시라고 계몽운동(啓蒙運動)을 벌이기도 한다. ‘인사를 잘하자’라는 것을 달기도 했는데, 것이라는 것이 계몽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勘案)하면 당시 우리가 너무나도 인사를 잘 알았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강의 시간이나 쉬는 시간 복도에서, 또는 교정이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은 그 간단한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인색(吝嗇)하다는 점이다. 그 학기 강의실에서 자주 보는 학생도 강의실 밖에서 만나게 되면, 잘나지 않지만 분명 눈길이 마주쳤는데도 외면하며 지나는 그 냉랭함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더욱 그렇고, 성적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평상시에 인사를 잘 하던 학생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더러 생긴다.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기를 알지 못할까봐서일까, 수줍어서 그런 것일까. 인사란 마음에서 우러나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내가 존경하는 어느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은 부임한 뒤 학생들이 너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아서, 교정에서나 마을길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일부러 큰 소리로, ‘안녕---영!’ 하며 고향치듯이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 이후 학생들은 물론 그 마을 사람들까지 서로 인사를 잘 하게 되어 온 동네가 밝아졌다고 했다. 인사는 전염성(傳染性)이 강한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교장 선생님처럼 호기(豪氣)있게 인사를 먼저 건네지는 못하고, 그저 매학기 종강 시간이면 매우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학생들에게 부탁하곤 한다.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만이라도 만나게 되면 눈길을 외면하며 내 마음에 상처(傷處)를 주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하지 않아도 좋으니 알은체하며 눈인사라도 하라고, 단지 그냥 아는 사람이나까 알은체라도 하라고, 인사란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여는 것이며, 나를 아는 너만이 아닌 내가 아는 너와도 더불어, 나아가서는 나를 알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너와 더불어 세상을 온통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니까. 인사는 따뜻한 바이러스니까.



**동문칼럼**

최송목 전자계산학과 83졸  
타임스페이스 대표

**이미지 콘텐츠 산업의 미래**

최근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가오는 물론 폰카의 수준도 300만 화소에 달하는 등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웬만한 가정이면 디지털카메라 한 대쯤 가지고 있다. 누구나 찍을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사진에 대한 희소성(稀少性)도 떨어지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대량출현으로 프로 작가들이 더욱 분발하고 전문화되는 계기가 됐다. 사진촬영 자체가 사치였던 시절에 장비나 시간적 물리적 제약조건을 밀거름으로 출발한 사진 이미지 콘텐츠 사업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가져다주는 그 파급효과(波及效果)는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국민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21세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산업과 맞물려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날로그에서 이미지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로 인해 웹상에서의 무한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데 있다.

80년대 초부터 태동한 이미지 콘텐츠 산업은 초기 작가집단의 사진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장수요와 예측을 통한 기획촬영과 대형에이전트를 통한 유통으로 대형화, 전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문제와 인터넷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린 이미지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먼저, 사진이미지의 제작자 공급자 층이 두터워지는데 따른 마케팅과 판매유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형화, 글로벌화되면서 종래 제작자 중심에서 유통업자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이동해 갈 것이다.

둘째, FTA발효로 저작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비용절감차원의 단순 불법복제에서 범죄차원으로의 인식전환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인식은 곧 돈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觸媒劑)가 될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은 석유재벌 풀게티가 거대자본을 쏟아 부어 만든 ‘게티이미지’와 빌게이츠의 ‘도버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 매출규모면에서 세계시장은 2조원 시장으로서 2014년에는 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국내시장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300억원 규모로서 외국 거대기업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또한 무예에이전트, 사진가, 프로그래머, 광고 에이전트 출신들이 스쳐가는 정보로 설립하여 영세(零細)한 규모로 운영해오면서 만성적인 적자와 해외 대형에이전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스닥상장사인 ‘텍셀네트콤’에 국내 이미지업체가 우회 상장하는 등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외 시장의 상대적 규모 격차 및 ‘지적재산권’의 부각 등으로 미루어 향후 그 성장성과 잠재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 볼 수 있다.



**학생칼럼**

신힘찬  
컴퓨터공학과 3학년

**개인 컴퓨터 보안 이렇게 하자**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다. 2008년 인터넷 보급률과 컴퓨터 보유율이 80%를 넘어섰을 정도로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와 밀접한 사이가 되었다. 또한 최근 메신저를 통한 인터넷 피싱이나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流出)같이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며, 개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 보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다. 윈도우즈를 사용할 때는 우선 초기 상태에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다. 즉, 윈도우즈를 처음 설치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보안 업데이트와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PC에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안 업데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사이트에서 각종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은 시

중에 많은 백신이 나와 있다. 물론 백신들 중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가짜 백신도 존재하니 조심해야 한다.

외부에서의 침입을 방지 했으면 유지가 중요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증(檢證)되지 않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으며 공유폴더나 방화벽 설정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주 공유폴더 설정, 방화벽 설정, 설치된 ActiveX를 체크하고 바이러스 검사와 스파이웨어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USB의 자동실행 기능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많다. 따라서 USB의 자동실행 기능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실행을 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에서 USB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모아온 자신의 자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개인 PC 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의 보안도 생각해야 한다. 자신

만 사용하지 않는 PC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PC방 같은 곳에서는 해킹 피해 사례(事例)가 많다. 따라서 가급적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의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인터넷 사이트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등 윈도우즈보단 바이러스 유포가 덜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의 Ddos 공격만 봐도 한국의 편향(偏向)적인 윈도우즈의 사용 때문에 터진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PC의 대부분이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사람들도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많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ActiveX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웹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가 많은 윈도우즈보다는 리눅스를 추천한다.

**사·진·에·세·이**



미술학부 졸업작품 전시회. 학생들의 일상에 작은 심포 하나.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 초청 CEO 특강 실시**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문과대학 CEO 초청 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9. 11. 11(수) 16시
- 장 소 : 다향관 세미나실
- 대 상 : 문과대학생 및 문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동국대학교 모든 학생
- 강연주제 : 서울의 문화도시전략과 서울문화재단

※ 참여학생 중 추첨을 통해 7명에게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2명에게 학교 기념품 풍경을 증정  
※ 문과대학 참여학생(복수전공생 포함)에게는 거울방학중 서울문화재단 현장실습 파견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문과대학**

# 2009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접수기간 2010.01.13(수) - 01.15(금)

수상작발표 2010.02.02(화)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공모부문 공연예술: 희곡 / 뮤지컬 대본  
영상시나리오: TV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참가자격 재학생 / 수료생  
2009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서울캠퍼스)학부 / 대학원 (석사)

접수처 영상미디어대학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혜화별관 1층)  
Tel: 02-2260-3763

주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협찬: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이론 유훈우 교수 문과대 철학전공

### 한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네랄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씨의 강제 추방을 계기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년째 한국에 머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해 온 미누씨를, 그것도 그의 변호인이 강제 퇴거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변호인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은 채 전격 송출했다는 사실이 포용(包容)을 핵심어로 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얼마나 빛깔만 좋은 개살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변명 또한 결국 그의 강제 추방이 문화운동 경력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실토(實吐)하는 것이었기에 허울로 치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한 국가의 다문화 정책은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회계층의 다양성이 그 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또 이러한 다양성은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증가시켜준다는 가정에서 수립(堅立)된다. 지금 정부가 다문화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사실에 미루

어 볼 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런데 혹시 정부는 다문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만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문화 교육을 '소외받는 그들'을 위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경제의 밑바닥 노동력, 아니면 농어촌사회 노동자 구제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연민을 구하는 '타자'가 아니라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좋은 경제적 기회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민족의 다양성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사회는 유사 이래로 가장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국가라는 관념(觀念)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성 증가 자체가 충격일 수 있다. '다문화 현상' 자체가 우리 내부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나 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 사회에 현존(現存)하고 있는 다양성이 모든 시

민들에게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인데, 미누씨 강제 송출은 한국 사회의 옹졸한 태도와 정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만을 노정(露呈)시키고 말았다.

세계를 오직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사람들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으며 문화적·인종적으로 편협한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결국 자신의 문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이 너무 슬프다." 미누씨가 강제 추방되기 직전에 한 인터뷰다. 18년 동안 이주노동자였으면서도 당당한 한국 사람이 되고자 애쓰, 한국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체화해버린 미누씨 앞에서, 그 한 사람도 포용하지 못한 우리가 과연 다문화, 다문화 교육을 말할 자격(資格)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슬픈 한국이다. '희망한국', '따뜻한 법치주의', '사회통합'이라는 말은 그저 빈 말일 뿐이다.

### 사설

### 예일대의 사실 은폐(隱蔽)

우리대학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일대가 진실을 은폐(隱蔽)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예일대 대변인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우리대학의 5천만 달러 소송과 무관(無關)한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예일대는 2005년부터 진행된 학위검증 공방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 심지어 고의(故意)적인 증거 은폐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예일대는 3개월 간 관련 증거 서류를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미 법무부의 영장이 떨어지지 불과 하루 만에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미 법무부에는 11일 뒤, 우리대학에는 6주 뒤에야 사실을 밝혔고 대외적인 공식 성명은 10주 뒤에야 발표했다. 우리대학이 학위 검증 파문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被害)를 입었음을 감지했음에도 예일대의 이러한 늦장 대응은 "문화적 오만(cultural arrogance)"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소송과 무관한 사건을 언급하며 마치 그 사건이 이번 소송과 관련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歪曲)했다. 예일대 대변인의 발언은 일명 스위프트 보팅(Swift-Boating)으로 관계없는 주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다. 예일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을 연관 지어 예일대의 실수를 축소하고 우리대학의 잘못만 부각(浮刻)시키려는 것이다.

예일대는 미국 명문대학을 대표하는 'Ivy League'의 일원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과 인프라를 구축해 학문과 미래의 대학 상(象)을 선도해 가는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이 자신들의 잘못을 단지 '바쁜 업무(the rush of business)' 때문이라고 변명(辨明)하는 모습과, 잘못을 시인(是認)하건커녕 고의적으로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소송과 무관한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그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케 한다.

예일대의 교훈(敎訓)은 '빛과 진리(Lux et Veritas)'다. 하지만 이들의 소송대응방식은 교훈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이다. 예일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예일대가 세계 최고의 대학,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대학이란 명예를 지키려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메아리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 유비무환(有備無患)

▲유비무환이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 고사성어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유래한다. 당시 진나라의 도공은 신하 사마위강의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제후국들의 분쟁들을 중재했다. 타 제후국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도공은 위강을 치하하고자 많은 금은보화를 하사하려고 했다. 위강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편안할 때에 위기를 생각하십시오(居安思危). 그러면 대비를 하게 되며(思則有備),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有備則無患)."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해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深刻)'으로 격상(格上)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했다. 전염병 확산(擴散)으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발족하기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했지만 뾰족한 추가 대책 없는 단계 격상이

오려 불안만 키웠다라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일제 휴교령 등 사회적 차단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데다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유도 등은 기존 대책을 반복(反復)한 것이어서 말만 '격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다. 발병 7개월여 만에 40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독감철을 맞이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감염이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하고, 수능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高調)되는 점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노약자나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소위 '고위험군'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종플루는 전염되기 쉽지만 비교적 독하지 않은 독감으로 확인됐다. 치사율도 보통 독감과 비슷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여는 독감과 달리 약효가 좋은 치료제가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백신도 이미 접종을 시작한 상태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함에 따라 국민 모두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도 격상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인 조치와 대응능력은 미흡(未洽)한 점을 반성하고, 이를 배양(培養)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언론도 신종플루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연일 발표하는 것으로 관심만 끌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심시켜줘야 한다.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미 퍼져 있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맞닥뜨려야 하는 건 개인이다. 신종플루를 앓았던 이들은 신종플루가 단지 독감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신종플루도 이전의 대응책과 마찬가지로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걸리더라도 치료 받으면 되는 독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이지만 국민들 모두 괜히 불안해하기보다 의연(毅然)하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간 : 2009.11.02 ~ 27(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일시 : 월 ~ 금요일, 14:00~
3.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 인사동 스킨들 등 20편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런닝타임
가을출시 영화DVD	2	인사동 스킨들 / 박희곤	한국	109분
	3	김씨 표류기 / 이해준	한국	116분
	4	킹콩을 들다 / 박건용	한국	120분
	5	로니를 찾아서 / 심상국	한국	92분
멀티미디어실 대어영화 베스트 5	6	천사와 악마 / 론 하워드	미국	138분
	9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 블라이어	미국	96분
	10	미스 홍당무 / 이경미	한국	100분
	11	과속스캔들 / 강형철	한국	108분
	12	추격자 / 나홍진	한국	123분
사랑스런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13	더 리디: 책 읽어주는 남자 / 스티븐 달드리	미국	123분
	16	인생은 아름다워 / 로베르토 베니니	이탈리	122분
	17	투게더 / 첸카이거	중국	117분
	18	효자동 이발사 / 임찬상	한국	116분
따뜻한 형제애, 형제간의 갈등과 사랑	19	아버지가 있었단 / 오스 야스지로	일본	94분
	20	마이피터 / 황동혁	한국	107분
	23	가을의 전설 / 에드워드 즈윅	미국	130분
	24	레인맨 / 베리 레빈슨	미국	131분
	25	길버트 그레이프 / 라세 할스트롬	미국	118분
	26	우리형 / 안건태	한국	112분
	27	유레카 / 니시카와 미와	일본	119분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 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류수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도서관

### 2009-2 동국 글쓰기 공모전

□ 제 5 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대상 : 2009년 1학기 / 2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 대상부문 : 감상문 (독서 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 일반보고서 (그 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 장려상 9명 각 100,000원

□ 제 4 회 독서와 글쓰기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부문 : 자유부문 / 교양부문 / 글쓰기센터 추천 (부문별 도서 목록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 응모형식 : 독서 감상문 (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300,000원 /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 장려상 5명 각 100,000원
- ※ 기타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주머니, 파일)을 증정합니다.

▶ 응모기간 2009년 10월 1일 ~ 11월 20일  
▶ 응모방법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결과발표 2009년 12월 초  
▶ 문의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02)2260-3380  
▶ 기타 제출된 원고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 전화 2260-3380 / 홈페이지 : <http://writing.dongguk.edu>  
※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동국우수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제됨, 담당교수명도 기입)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취업글쓰기상담, 일반보고서상담, 보고서집중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혹은 udrr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11/9)	섭산적구이(2200)/모듬가스(3000)/체육비빔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화(11/10)	모듬장조림(2200)/치킨가스(2500)/김치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수(11/11)	치킨탕수(2200)/돈가스(2500)/낙지덮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상록원	목(11/12)	오징어볶음(2000)/함박스테이크(2500)/치즈볶음밥(2200)/순두부찌개(2500)
	금(11/13)	제육순대볶음(2200)/치즈돈가스(3000)/해물덮밥(2200)/특선초밥우동(3500)
	월(11/9)	낙지돈육불고기(2200)/새우가스(3000)/닭강치비빔밥(2200)/날치알술밥(2500)
아리수	화(11/10)	두부조림(2200)/치즈돈가스(2500)/볶음밥,구운소세지(2200)/설렁탕(2500)
	수(11/11)	미트볼케첩조림(2000)/치킨가스(30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사브랄국수(2500)
	목(11/12)	장조림백반(2000)/돈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불낙전골(3000)
혜화관	금(11/13)	궁중떡볶음(2200)/상록원정식(3000)/참치김치덮밥(2200)/해물누룽지탕(3000)
	월(11/9)	오삼불고기덮밥(22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
	화(11/11)	라조육덮밥(2200)/치킨골소스덮밥(2200)
화관	수(11/12)	치즈돈육불고기(2200)/해물덮밥(2200)
	목(11/13)	닭강치덮밥(2200)/간지장밥(2000)
	금(11/14)	양식카레돈가스(2500)
관	월(11/9)	짬뽕덮밥(2200)/치즈불닭술밥(3000)/김치볶음밥(2200)
	화(11/10)	열무비빔밥(2200)/치킨가스(2500)/불고기덮밥(2200)
	수(11/11)	제육떡볶음(2200)/참치전골(2500)/해물골소스볶음밥(2200)
관	목(11/12)	데리야끼치킨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쇠고기카레라이스(2000)
	금(11/13)	낙지덮밥(2200)/어묵우동(2500)/오삼불고기덮밥(2200)



① 가을 약차를 만드는 혜성스님. ② 국화차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는 경동약재시장 상인. ③ 오미자 은행차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넣는 모습. ④ 국화차를 만드는 다도 현장. ⑤ 감기와 기침에 좋은 가을 약차 4선.

## 가을철 질병 막고 건강하게 해주는 약차(藥茶)

# 맛과 건강 일석이조, 약차는 훌륭한 보약



동의보감에서 가을은 ‘한껏 양기(陽氣)로 부풀었던 여름의 기운을 꺾어서 음기(陰氣)를 쌓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가을은 기운을 꺾는 기세가 겨울보다도 더 강하고 냉랭하다고 하며, 가을의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면 폐가 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절기(換節期)인 요즘 코 막힘, 목감기, 기침 등 유난히 호흡기 질병(疾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을에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날씨가 추워져 신체를 움츠리게 되고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게 되는 이들이라면 가을철 ‘훌륭한 보약’으로 일컬어지는 ‘약차’에 주목해보자.

### 약차란?

약차란 한약재를 이용한 차로써 약효가 있는 풀이나 나뭇잎, 꽃, 열매, 뿌리, 씨앗 등을 물에 달이거나 담궈 유효성분을 녹여낸 후 마시는 차이다.

약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 몸의 혈액 순환(循環)을 돕는 것 외에도 우울증, 피로 누적, 피부 건조증 등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돼 다양한 약차의 종류 중 자신의 증세에 따라 골라 마시면 된다.

가을철에 좋은 약차로는 감기를 예방(豫防)하고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을 주는 들국화차, 오미자차, 생강차, 대추차 등이 있다. 약차는 식품의 일종인 만큼 의약품처럼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얻지는 못하지만 1~2개월 꾸준히 마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效果)를 볼 수 있다.

### 약차에 대한 관심 늘어

차 전문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요즘 커피 대신 약차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 손에 커피대신 국화차가 든 텀블러(용수 담는 긴 잔)를 쥐고 길을 걷는 직장인들도 있다.

더불어 환절기인 요즘 제기동 약령시장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손쉽게 우려먹을 수 있는 약차의 재료를 사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약차 재료 판매상(販賣商)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환절기 철이라서 감기, 기침을 예방해주는 약차 재료를 구입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며 “오즘은 열을 내려주는 들국화, 감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오미자 등을 많이 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상점에서 오미자 한 근과 은행을 구입한 손님은 “감기에 걸린 딸에게 오미자와 은행을 우려낸 차를 만들어주기 위해 구입했다”고 언급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 오는 가을철, 세심하게 재료를 직접 고르는 정성까지 더해진 약차는 가을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보약(補藥)으로 다가서고 있다.

### 가을철 질병 예방엔 약차

혜성스님은 한국명선차인회이사장으로 현재 우리대학 불교대학원 차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혜성스님은 가을철 질병과 관련하여 특히 감기의 발열과 기침에 좋은 차로 ‘들국화 호도길경차’, ‘오미자 은행차’, ‘들국화차’, ‘차조기(소엽)차’를 총 4가지의 약차를 만들고 효능에 대해

설명했다. 혜성 스님은 “이 4가지 약차의 사용된 재료 중 국화는 열을 내려주며, 도라지(길경)의 경우 기침과 가래 등 기관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미자의 경우, 담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를 윤하게하고, 피로를 다스린다. 은행은 기침을 멈추게 하며 가래를 없애는데, 오미자와 음식 궁합이 잘 맞아, 이 두 재료를 합쳐 만든 오미자 은행차는 그 효능이 두배라고 한다. 깨끗한 한 종류인 차조기를 우려낸 차조기차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특효(特效)가 있다.

### 약차엔 향기와 맛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차하면 쓴 맛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들국화차는 찻잔 속에 담긴 노란 꽃잎과 은은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한 느낌을, 붉은 빛의 오미자 은행차는 시름하지만 달달한 맛을 자아냈다.

또한 다소 생소한 약차인 ‘들국화 호도길경차’는 향긋한 도라지 향과 호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사했다. ‘들국화 호도길경차’의 경우, 같이 끓인 도라지를 같이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혜성스님은 “은행, 오미자, 도라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이다. 집에서 쉽게 약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며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이색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약차를 즐겨보기를 권했다.

### 증세 따라 골라 마시자

추운 겨울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게 대추차를 권해보자. 혜성스님은 “대추를 사다가 10시간 정도 우려낸 후 그 즙을 마시면 대추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퍼져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난히 손과 발이 차다면 속차를 꾸준히 마셔보자. ‘동의보감’에서는 속이 혈액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감기·오한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다. “썩은 성질이 따뜻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이 미각을 돋아준다”며 몸이 찬 여성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차라고 강조하는 혜성스님.

이밖에 도 골(橘)의 껍질을 넣고 끓인 물에 생강, 꿀을 넣어 만든 진피차는 소화불량, 피부미용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약차는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여러가지 효능을 갖추었기에 자신의 체질(體質)과 건강 상태에 맞춰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다.

### 약차로 건강한 가을나기

커피를 자주 마시는 우리에게 약차는 아직 생소하다. 약차라고 하면 쓴맛을 떠올리겠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는 약차들도 많다. 은행, 오미자, 도라지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보는 정성(精誠)만 더해진다면 가을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보약 ‘약차’를 즐길 수 있다.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우울감을 느낀다면, 감기로 입맛을 잃고, 몸살로 고생한다면, 맛과 건강을 만족시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약차로 몸, 건강 모두 건강한 가을을 보내자.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가을철 약차 제조법

#### 오미자 은행차

- ① 물 2L를 끓인 후 오미자를 넣고 10시간 정도 담아 놓는다.
- ② 10시간 후 오미자를 건져내고 은행을 넣어 끓인다.

#### 들국화 호도길경차

- ① 물 2L를 끓인 후 들국화를 넣고 10시간 정도 우려낸 후 찌꺼기를 건져낸다.
- ② 호도를 껍질까지 부순다.
- ③ 도라지와(길경)과 부순 호도를 끓인 들국화 물 넣고 끓인다.
- ④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정도 후에 불을 끄고 찌꺼기를 건져내고 마신다.

#### 차조기 차

- ① 차조기를 넣고 20분간 센불에 끓인다.
- ②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 후 약한 불에 끓인다.
- ③ 차조기 찌꺼기를 건져내고 마신다.

## 국제정보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 1. 일정

구 분	일 자
입학원서 접수	2009. 11. 9(월) ~ 11.20(금) 09:00 ~ 17:00
전형일(구술면접)	2009. 11. 28(토) 14:00 ~
합격자 발표	2009. 12. 3(목)

### 2. 모집학과(전공)

구 분	모집학과	전 공
신(편)입학	정보보호	정보보호, 사이버포렌식
	영어통번역	영어통번역전공 (입학 후 2학기부터 영어통역, 영어번역전공으로 세분화 됨)

### 3. 접수

구 분	접 수 처
인터넷 접수	http://gsiai.dongguk.edu
방문 접수/우편접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학술관1층)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4.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iai.dongguk.edu)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33-5)

국제정보대학원

## 언론정보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 1. 일정

구 분	일 자
입학원서 접수	2009. 11. 9(월) ~ 11.20(금) 09:00 ~ 17:00
전형일(구술면접)	2009. 11. 28(토) 10:00 ~
합격자 발표	2009. 12. 3(목)

### 2. 모집학과(전공)

구 분	모집학과	전 공
신(편)입학	신문방송	신문방송, 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	광고홍보
	출판잡지	출판잡지, 인쇄 화상

### 3. 접수

구 분	접 수 처
인터넷 접수	http://gsai.dongguk.edu
방문 접수/우편접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학술관1층)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4.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ai.dongguk.edu)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33-5)

언론정보대학원